



## 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총 4백43만 5천23명 서명

### - 전동용회장, 수입개방저지 활동 지속 전개 천명

취재 : 이 상 길 기자

본회를 비롯, 축협,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농어민후계자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6개 생산자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11시 축협중앙회 2층 강당에서 범국민운동 추진위 소속 단체장, 관계자, 언론계 등 각계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산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부 열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본회 전동용 회장은 서명운동의 취지와 효과 및 앞으로의 운동 전개방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은 농민들의 수입개방에 대한 의식구조를 개선시키고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협상과정에서 우리 축산농민에게 유리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의지를 보여 주며, 우리 농축산물먹기 국민운동본부와 연계, 소비자들의 의식구조, 소비패턴 등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 및 정치권에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서명부 열람 및 간담회 장면



△본회 전동용 회장이 명의식 축협 중앙회장과 함께 서명부를 열람하고 있다.

하고, 「앞으로 이 운동은 소비자와의 긴밀한 연대의식을 갖고 계속 전개될 것이며,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사회적으로 농정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관련단체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국민운동 전국추진위원장인 명의식 축협중앙회장은 「서명기간중에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은 축산인들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해 주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축산인들은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각 단체장들은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재확인 됐다고 지적, 이같은 국민들의 뜻을 살려 쇠고기 쌍무협상에서의 수입쿼터량 동결과 SBS 물량확대 불가입장이 관철되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지난 5월 21일 축협 등 6개 생산자단체와 함께 축협 2층 강당에서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

의한 바 있으며, 이후 9개 도협의회와 84개 지부에서 일제히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특히 양돈회관 입구에 서명대를 설치, 출입자를 상대로 서명을 받았으며, 서울의 그랜드백화점 앞,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대학교, 지하철 역 등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한미 쇠고기 쌍무협상 당일인 11일에는 회담장인 과천 정부 제2청사 앞에서 전동용 회장, 이명복 부회장, 노영한 전무, 김찬채(안양·시흥), 김인식(천안), 박동래(부천), 김재철(철원) 지부장, 중앙회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다른 축산관련단체소속 5백여명과 함께 가두시위를 전개, 협상대표들에게 우리 축산농민들의 개방반대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본회가 받은 서명자수는 1만1천2백81명으로, 목표의 113%를 달성했으며, 총 서명자수는 4백43만5천23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서명부들은 5백매씩 지역별·단체별로 편철하여 축협중앙회 2층 강당입구에 전시하는 한편, 협상국 대사관을 통해 협상국측에 전달키로 했다. **■**